**A picture containing tex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한 이 기도는 대담한 기도였다. 이는 우리에게도 대담한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두 번째 편지는 혼란과 싸움과 혼돈의 시기에 전달되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에 어떤 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다고 믿었던 반면,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의심을 이용하여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배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서신은 하나님의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축복 기도로 끝을 맺는다: "모든 때" 보다 "어떤 때", 또는 모든 일보다 어떤 특정한 일로 줄여서, 평화를 상상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상황에서는 너무 대담한 요청이었을 것이다. 당신은 평화를 상상하기 힘들만큼 하나님의 평화로부터 멀어진 적이 있는가?

평화는 종종 대담한 기도이며 종종 상상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운동은 예술적 표현과 종종 함께 어우러진다. 혼란과 싸움과 혼돈 속에서, 시각 예술가들과 무대 공연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다. 폭력과 억압에 극도로 취약한 사람들의 애통이나 분노의 시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교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춤을 츨 수 있다.

예술적 표현은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밝히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다. 우리의 합창은 이것의 빛나는 실례이며 당신도 동의하리라 확신한다. 오랫동안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레바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술은 평화를 상상하도록 해준다. 또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장로교인들은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계절을 상상하고 있다.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희망의 노래와 내면의 평화에 동참할 수 있다. 교단은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며,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은, 우리 개개인의 표현 속에서, 혹은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평화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도록 도와준다. 모인 헌금의 25%는 여기 여러분 지역 사회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교회가 사용하게 될 것이다. 헌금의 25%는 중간 공의회에 지원되고, 헌금의 절반은 우리 교단의 동역자들에게 지원되어 우리의 평화의 증언이 확산되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화를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수많은 평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재능을 다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도록 영감을 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한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 많은 것이 된다.

***기도합시다:***

*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고 당신의 정의와 평화를 알게 된 세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아멘****.*